



작업장 세척시설 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환경미화업무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 하권철(창원대학교 부교수)

연구기간 : 2009.09.09-2009.11.15

등록번호 :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10-84-915

근래에 환경미화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직업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미화원은 마른쓰레기로부터 비산되는 먼지에 노출되며, 젖은 쓰레기 접촉으로 인해 의복과 몸이 젖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오염된 몸을 씻고 의복을 세척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틀 속에서 근로자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쓰레기나 오물을 제거하고 수거하며 분류하고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 종사하는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특

히 세척시설 확보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척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음의 6가지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1.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미화원 관련 통계적인 위험 정도를 파악
2. 연구대상이 되는 환경미화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직무 특성상, 업무형태로 세분화
3. 음료수 제공 및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과 관련된 일반 규정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실내인 경우에만 통용되는 냉·난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규정을 고열·한랭 또는 다습적인 작업에 대하여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해외 규정과 사례를 검토

4.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nvironment Statistic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업 종사 근로자의 최근 규모 파악

5. 사업장 세척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 소속 또는 대행 청소사업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 확인

6. 세척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한 유사사례 등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방법과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최적의 대안 제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와 환경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체 청소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2008년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106,087명이었으며 환경부에서 조사된 2009년 현재 환경미화원은 35,521명이었다.

12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척시설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척시설 설치율은 77.9%였으나, 차고지나 휴게실에 실제

설치된 곳은 67개소(54.9%)에 불과하여 세척시설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전체의 45% 정도 되었으며, 근로자들의 경우 93.4%가 세척 및 세탁시설 설치로 건강상의 영향 및 오염실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세척시설 확보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는데, 주택임대 및 이동식 샤워시설의 설치는 30%의 질환 감소 편익으로 돌아온다면 현재가치로 약 565억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고, 50%의 질환 감소시에는 약 819억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대중목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직업관련 위험성을 분석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위생조건 개선을 위한 세척시설 확보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건강하게 일할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장 세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